DBpia

십자가 수난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예수 이해

Understanding Quranic Jesus Based on Its Narrative on Crucifixion

저자 (Authors) 김아영
Ah Young Kim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2018.9, 9-44(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377

APA Style 김아영 (2018). 십자가 수난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예수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9-44

이용정보 (Accessed)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11: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https://doi.org/10.30532/mce.2018.11.2.9

십자가 수난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의 예수 이해

김아영*

Ⅰ. 서론 : 꾸란의 예수 이해에 대한 엇갈린 관점

Ⅱ. 꾸란에 나타난 예수의 호칭

Ⅲ. 예수의 죽음에 대한 꾸란의 이해

Ⅳ. 십자가 사건 해석의 배경

Ⅴ. 결론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교수, 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Ⅰ. 서론 : 꾸란의 예수 이해에 대한 엇갈린 관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은 그와 연관된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 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이슬람의 발흥이후 지난 14세기동안 무슬림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불러 일으켜왔다. 크래그(Kenneth Cragg)에 의하면 이 주제는 "실제로 무슬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다."[1] 전통적인 무슬림 학자들은 신성이 인성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비유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성육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예수가 꾸란에서 다른 선지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시리아 출신의 기독교학자인 쇼캣 머캐리(Chawkat Maucarry)는 꾸란에서 예수가 15개의 수라(*surah* 장, chapter), 93개의 절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예수는 이슬람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머캐리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예수를 신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하나로 존경하며 그의 이름을 따라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한다. 무함마드의 언행을 모아놓은 하디스에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예수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의 아들(예수)과 가장 가까우며, 모든 선지자들은 형제들로서 그와 나 사이에 다른 선지자는 없다"[2] 이슬람의 신비주의인 수피들 사이에서도 예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수피 신학자인 이

1 Kenneth Cragg, *The Call of the Minaret*, second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Ibadan: Daystar Press, 1985), 224.

2 Chawkat Moucarry, *The Prophet and the Messiah* (Downers Grove,IL: InterVarsity Press, 2001), 127.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븐 아라비는 꾸란에서 "선지자들의 봉인(the seal of the prophets)"이라고 불리는 무함마드[3]와 비교하여 예수를 "성자들의 봉인(the seal of the saints)"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무슬림 학자인 무함마드 아타 우르-라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 준다: "꾸란은 예수의 삶에 대해 특별히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가 베풀었다고 언급되고 있는 기적과 능력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평범하게 기술하고 있다."[4]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확연한 관점의 차이는 기독론과 관련되어 기독교-이슬람 간의 대화의 어려움(predicament)을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이슬람간의 만남의 긴 역사 속에서 기독론은 가장 신랄한 논쟁의 주제였고 지속적인 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생산적인 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5]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무슬림 학자인 스마일 발릭(Smail Balic)은 이슬람의 기독론이 기독교의 신학적 고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종교간의 토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슬람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꾸란이 비록 예수를 다른 인간들보다 우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에 의해 계시가 봉인될 때까지 인간들을 지도하기 위해 알라가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의 역사가운데 한 인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발릭은 주

3 수라33:40

4 Muhammad 'Ata ur-Rahim, *Jesus, Prophet of Islam* (Elmhurst, NY: Tahrike Tarsile Quran Inc.,1991), 206.

5 David Kerr, "Christology in Christian-Muslim Dialogue," in Robert F. Berkely and Sarah A. Edwards eds., *Christology in Dialogue*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1993), 201.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장하기를 예수를 포함한 이슬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은 윤리적 모범을 위한 가치가 있을 뿐 "무슬림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꾸란에 나타난 예수의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해온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거나 신학자들, 혹은 기독교 신학에 호의적인 오리엔탈리스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예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결론과 평가에 도달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꾸란의 개별적 구절들에 근거한 예수의 이미지는 잘못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부되어야 한다."[6]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어떤 기독교-이슬람 간의 대화도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단언하였다.[7]

발릭의 주장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이슬람에서 예수는 철저히 인간적인 차원만을 갖는다. 꾸란도 인정하는 동정녀 수태만이 그와 일반적인 다른 인간과의 유일한 차이로 묘사된다. 동정녀 수태뿐만이 아니라 꾸란에 기록된 예수가 행한 모든 기적들도 예수의 우월함이나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들이 가능하게 한 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믿어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관심을 갖는 기독교 신학과 달리 이슬람 신학은 신적인 고유함을 인간과 분유하는 그 어떤 생각도 인간이 갖는 것을 철저히 금하기 때문에 기독론은 이슬람 신학 내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슬람의 예수 이해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 수난에 대한 이슬람적 서술과 그

6 Smail Balic, "The Image of Jesus in Contemporary Islamic Theology," in *We Believe in One God: The Experience of God in Christianity and Islam*. Annemarie Schimmel and Abdoldjavad Falaturi, eds. (New York: Seabury Press, 1979), 3.

7 Ibid., 7-8.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서술의 배경이 되는 신학적 이유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의 십자가가 헬라인들뿐만이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어리석은, 혹은 비신앙적인 상징인지, 아니면 십자가 수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기반으로 무슬림들에게도 십자가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여지가 존재하는 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꾸란에 나타난 예수의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personality)에 대한 관점은 이슬람과 기독교간의 중요한 차이점이며, 이 차이점으로 인해 두 종교의 신봉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믿고 있으며, 아브라함, 모세, 무함마드와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며 존중한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있으며, 이것은 무슬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무슬림들의 신학 속에 나타난 예수 이해에 대한 연구는 꾸란에 의해 근거지어져야 하므로 본 단락에서는 꾸란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호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슬람의 예수 이해의 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1. "이싸"(*Isa*)

예수의 영어명인 '지저스'(Jesus)는 헬라어 '이에수스'의 번역이며, 이것은 "그가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아람어와 히브리어 '예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슈아'에서 비롯된 것이다. 꾸란에서 예수의 고유명사는 "이싸"로 나타나며, 이 이름은 그 의미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꾸란에서 25번 사용된다. 이 이름의 형태는, 그것이 히브리어 예슈아에 근원을 두고 있는 시리아어 '예슈'에서 온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어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야기시켰다.

그 중에 무슬림들이 따르는 대표적인 견해는 라지(ar-Razi)에 의한 것으로 그는 이싸라는 호칭이 남부 시리아나 아라비아에 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발음되던 '예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남부 시리아에는 A.D. 571년에 벌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을 의미하는 '이싸니야'라는 수도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8]

기독교에 대한 무함마드의 지식의 대부분이 시리아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아랍어 고유명사 이싸는 시리아어 예슈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변이에 대한 이론들은 언어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며 다만 뇔데케의 주장대로 무함마드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은 알지 못한 채 그 이름을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9] 그런데 무슬림들의 예수 이해에 있어서 이싸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그 이름이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의미는 배제시키고 있다는

8 Geoffrey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Oxford: One World, 1996), 16-21.

9 9C의 기독교 논쟁 신학자(Polemicist : 이슬람이 기독교 지역이었던 비잔틴 제국에 급속도로 번져가자 그들의 신앙에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이 새 종교에 대해 논쟁적 접근을 하였던 일단의 기독교 신학자들과 그 계승자들)이었던 알-킨디는, 꾸란은 초기에 이슬람으로 개종된 유대인들에 의해 기독교에 제기되었던 부당한 비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 이싸도 그 영향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또한 17C의 마라치도, 유대인들은 증오심에서 예수를 에서라고 불렀으며, 무함마드는 그들로부터 이 이름을 성실하게 수용했다고 추측했다: Neal Robinson,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London : Mecmillan Press, 1991), 9-11.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점이다.[10] 서구의 기독교신자들의 예수에 대한 명칭인 지저스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어 이에수스의 번역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예호슈아의 축어인 예슈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또는 "구원자는 야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음서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눅 1:31)고 말함으로써 그 이름에 담긴 구원론적인 의미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꾸란에서 "이싸"라는 호칭은 이러한 구원론적 의미는 배제한 채 단순한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꾸란이 예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후대의 이야기들과 작품 속에서 무슬림들은 예수의 가난과 사랑, 자비를 칭송하기는 하나, 이슬람의 인식 속에서 예수는 한 명의 선지자일 따름이며, 기독교에서의 그의 중요한 역할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2. "이싸 이븐 마리얌"(*Isa ibn Maryam* 마리아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꾸란에 23번 등장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열여섯번, 마리아의 아들로만, 또는 다른 호칭과 함께 일곱 번 나타난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호칭과 대조를 이룬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마흔 다섯차례나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반면에 마리아의 아들로는 단 한번 막 6:3에서 언급되어질 뿐이다.

꾸란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의 사용이 의미하는 바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분명히 부계 호칭을 사용하

10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던 아랍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게다가 모계호칭의 사용은 아랍 문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로 불리워진 것은 분명히 그 호칭이 예수에 대한 무슬림들의 인식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한다. 그래서 알리(마울라나 무하마드 알리)는 그의 꾸란 주석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예수 역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첨가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단 한번 발견되어지며,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성경이 씌여진지 몇 세기 후의 정통기독교 문서들을 연구해 보아도 이 명칭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다.

반면, 외경들에서는 종종 발견되어지는데, 제임스(M.R.James)의 신약외경 표준본에 의하면, 이 호칭은 아랍 유아기 복음서에 다섯 번, 시리아 유아기 복음서에 열다섯 번 등장한다. 이러한 구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 유아기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독교인과 유대인간의 논쟁에 관한 것이다.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했다고, 너희들이 말한 마리아의 아들이다. 너희는 마리아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유대인들이 말한 내용은, 비록 기독교인들이 왜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으며, 또한 일부 시리아의 아랍의 기독교인들도 이 명칭을 사용했으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유아기 복음서에 몇 차례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 호칭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7C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따라

11 Ibid.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서 무함마드도 쉽게 그 호칭을 접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12] 따라서, 무함마드가 그 이름을 경멸적이거나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에 통용되던 이 이름을 예수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택했다고 여겨진다.

3. "알-마시"(*Al-Masih*, 메시아)

꾸란에서 예수는 메시아(알-마시)라는 호칭으로 11번 나타나는데, 모두 메디나 시대에 계시된 꾸란의 장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수의 수태고지와 관련된 3:45, "... 그의 이름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예수이니라...."와 5:75, "메시아가 가로되,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에서 처럼 이 호칭은 앞서 살펴본 "이싸"와 같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꾸란에 나타난 예수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파린더(Geoffrey Parrinder)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아무 설명 없이 예수에게 부여되어 그의 탄생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사용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이 호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진실로(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4:171) : "예수(메시아)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니라."(5:78)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호칭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에 대한 방어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메시아를 과거의 사도들과 선지

12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22–29.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자들의 연계 속에 두는 것이며, 실제로 구약 언어의 계승자로 인식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13] 또한 메시아는 천사들과 함께 언급되어지기도 한다. "그리스도(메시아)는 하나님의 종 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랬도다."(4:172) 그리고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4:157)라고 언급되어지기도 한다. 이 중요한 구절은 다음 단락에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되어 다시 고찰될 것이다. 파린더는 이 구절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일 수는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메시아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호칭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파린더의 주장대로 꾸란에서 메시아 호칭이 아무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해도, 그것이 기독교에서의 메시아와는 의미상 크게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예수의 칭호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희랍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으로 제사장 직분이나, 왕의 직분을 위하여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에 의하여 나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며, 동시에 그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임을 통고한다.(눅 1:32)

13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30–34.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무슬림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록한 부분과 예수가 곧 이 땅에 보내어진 구원자, 경고자, 예언자 라고 기록한 부분은 똑같이 동의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 되어 오심 이라는 부분은 절대 부인한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크게 오해한 것에서 잘못된 기독론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14]

Ⅲ. 예수의 죽음에 대한 꾸란의 이해

"꾸란은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슬람의 기독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서 수세기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세워 피의 희생과 죄의 대속이란 신조를 확립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사업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반면에,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꾸란에 의해 분명히 확증되는 사실로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불신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을 고려해볼 때는 기독론을 통한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꾸란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꾸란은, 최소한 예수를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다

14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꾸란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5–6.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음모를 하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영특한 계획자이시도다"(3:54).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전통적인 이해에 의하면 예수는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예수의 십자가 수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 사건이기 위해서는 그를 죽이려고 한 유대인의 음모와, 그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려고한 예수의 자발성,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남 등,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최소한 앞의 두 가지 사실은 인정하므로 크래그(Kenneth Cragg)는 거기서부터 대화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15]

본 단락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꾸란 4:157을 중심으로 예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꾸란의 구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것이 이슬람-기독교 관계에 대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십자가 사건의 부정: 수라4:157에 대한 분석

꾸란에서 십자가 수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단락은 4:153-162이다. 이 단락은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유대인들과 매우 긴장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의 것이다.[16] 수라[17] 2,3,4와 5가 이러한 긴장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과거 모세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 법을 어겼으며 선지자

15 Kenneth Cragg, *Jesus and the Muslim* (Lodon : George Allen & unwin,1985), 166.

16 Roelf S. Kuites(1992), "Christology in the Quran," *Missi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1.XX, No.3 July 1992), 359.

17 꾸란의 장(chapter)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들을 살해 하였고, 마리아를 모독하는 험담을 한 것 등과 같은 그들의 불순종이 강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유대인들은 또한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고까지 단언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무함마드에게 계시하였다:

>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 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느니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에게 지식이 없음이며 단지 추측을 따르는 것이어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도다."(4:157)

예수의 수난에 대한 무슬림의 인식을 확실히 드러내 주는 이 구절은,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동사 "셔비하"("그렇게 보이다", "유사하게 보이다", "~로 여겨지다", "가장되어지다"의 의미)와 그 속에 숨어있는 대명사[18]의 해석을 놓고, 수세기 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최영길 역 꾸란에서는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느니라" 고 다소 모호하게 번역되어진 문장인 "셔비하 라훔"은 그래서 번역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1) 단지 유사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따름이다.(아베리, Arberry)
2)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여겨졌을 따름이다.(아싸드, Asad)
3) 그는 그들에게 가장되어졌다.(벨, Bell)

18 아랍어 문법에서 대명사는 강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사의 형태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의 주어는 문맥에 따라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Cragg, *Jesus and the Muslim*, 170.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4)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픽톨, Pickthall)
5)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졌다.(유서프 알리, Yusuf Ali)
6) 그들에게 그것은 환상이었다.(압드 알-라티프, Abd al-Latif)[19]

위의 예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 동사 "셔비하"의 주어는 "그(He)", 또는 "그것(It)"으로 해석되어지며, 이에 따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도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으나)그가 죽은 것처럼 여겨졌다"와 "그는 실제로 죽지 않았으나, 죽은 것처럼 여겨졌다"로 해석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여진 것이 "그"인가 아니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의 죽음" 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2. 대체된 수난설 (Substitution Theory)

먼저 "대체된 수난설" 즉, 주어를 "그"로 보고, 예수 대신 다른 사람이 수난을 당했다고 해석하는 관점을 살펴보겠다. 이것은 이슬람 전통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많은 무슬림 주석가들에 의해 채택되어진 관점이다. 구레네사람 시몬, 가룟 유다, 제자 중 한 사람, 심지어는 예수의 적들 중의 한사람이 그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꾸란 주석가 바이다위(al-Baidawi)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몰려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그가 예수를 하늘로 올릴 것임을 알렸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 중 누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물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자원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의

19 Ibid.,170.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형상을 입혀서 대신 수난을 당하게 하셨다.[20] 바이다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즉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형상을 입혀서 수난 받게 한 이것이 꾸란에서도 언급된 하나님의 보다 뛰어난 계획이라는 것이다.[21]:

"그들이 음모를 하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영특한 계획자이시도다."(수라 3:54). 그런데 바이다위는 다른 대체된 수난설과 달리 예수 대신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는 반대하는 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속임수, 내지는 기만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대체된 수난설을 주장하려면 바뀌어진 인물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계획과 관련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수난을 당한 사람으로 다름 아닌 가롯 유다를 제시한다.[22] 유다는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을 때 자살한 것으로 전하여 지므로,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했다.

꾸란 주석가 타바리(al-Tabari)에 의하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예수는 몸을 숨긴다. 그 후 시몬이 그를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가 그를 배신하였다. 예수는 체포되었고, 십자가로 끌려갔다. 유대인 무리 중에는 조슈아라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 후에, 예수의 모습을 조슈아에게 입혔고, 그가 대신 수난을 당하였다. 조슈아는 7일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는 매일 밤 그에게로 찾아와 그의 발밑에서 울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예

20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111.

21 Robinson,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139.

22 Joseph L. Cumming, "Did Jesus Die on the Cross?: Reflections in Muslim Commentaries," in J. Dudley Woodberry, Osman Zumrut and Mustafa Koylu eds., *Muslims and Christian: Reflections on Peace: Divine and Human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43.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예수의 이 하강과, 하늘로 다시 돌아감을 기념하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축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23] 파린더(Geoffrey Parrinder)에 의하면, 타바리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꾸란과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인용하였지만, 이것은 어떠한 경전적 근거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바리의 설명은 오늘날까지도 무슬림들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해석이다.[24]

또 다른 주석가 자마크샤리(az-Zamakhshari)도 십자가 수난과 관련되어 사용된 동사 "셔비하"는 "유사하게 하다", "닮게하다"란 뜻을 가진 동사 "샤바하"의 남성 3인칭 단수 완전 수동태 형으로서, 이 동사의 문법적 주어는 "그"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 주어가 죽임을 당한 사람 또는 비인칭 주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자마크샤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 보다는 첫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십자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가 체포될 당시, 대신할 자원자를 구한 바이다위의 해석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두 번째 해석을 소개하겠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는 예수에 대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가 예수의 집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늘로 올리고, 대신 이 배신자로 하여금 예수의 외모를 갖게 하여 죽게 하였다. 이 사건 후 유대인들 사이에선 의견이 나뉘어져 "예수는 신이었다. 따라서 그가 죽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가

23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111.

24 Cumming, "Did Jesus Die on the Cross?: Reflections in Muslim Commentaries," 34.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예수는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 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일 이 사람이 예수라면 우리의 동료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의 동료라면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도 하고 혹은 "그의 얼굴은 예수이나 몸은 우리의 동료이다"라고도 하는 등 예수의 죽음과 그의 승천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25]

예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전적 근거가 미약하고, 상상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가르쳐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작가인 압드알-하미드 쥬다 알-사하르(Abd al-Hamid Judah al-Sahhar)는 1952년에 출판된 그의 책『메시아, 마라아의 아들 예수』에서 예수가 수난당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신 죽었다고 서술하고 있다.[26] 또한 무슬림 학자인 무함마드 아타 우르라힘(Muhammad Ata ur-Rahim)도 그의 책『예수, 이슬람의 한 선지자』에서 일반적으로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신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 가롯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를 체포하는 상황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이때가 마침 어두운 저녁이라 유대인들은 가롯 유다를 예수로 오인하여 체포했다는 것이다. 빌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고, 그래서 빌라도와 그의 부인은 콥틱 교회에서 성자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예수를 체포할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의 모습을 갖게 함으로, 그가 대신 수난 당했으며, 예수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지들까지도 십자가 사건 후 예

25 Robinson,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133-134.
26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112.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수가 그들에게 나타나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를 예수로 믿었다는 것이다.[27] 우르라힘은 이것이 당시에 그 사건을 놓고 혼란스러운 해석들이 생겨났던 이유였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이 예수였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지하는 기록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통적인 꾸란의 주석가들이 "대체된 수난설"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상상과 소설적인 허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린더가 지적한 바와 같이 꾸란에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대신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이 어디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것에 대한 후대의 어떠한 첨가도 정당화 되어질 수 없으며, 본문에 대한 곡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파린더의 평가이다.

3. 기절설

만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지 않았다면, 예수가 실제로 죽었는가? "셔비하 라훔"에 대한 무슬림들의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그것"이며, 따라서 "예수가 죽은 것처럼 외형상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다. "아흐마드파의 견해"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이 입장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는 하였으나 십자가상에서 죽지는 않았다. 그는 무덤 속에서 회복되었고 마침내는 인도의 카시미르 지방으로 가서 이슬람을 전파하다가 자연사했다는 것이다.

27 Muhammad Ata Ur-Rahim, *Jesus, A Prophet of Islam* (Karachi Begum Aisha Bawany Waqf, 1980), 38-39.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사이드 아흐마드 칸(Sayyid Ahmad Khan)에 의하면 "십자가형 자체가 사람을 죽게할 수는 없다. 단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찢어질 따름이다... 서너 시간 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 때까지도 그가 살아있었음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은밀한 장소에 숨겼다."

알리(Maulana Muhammad Ali)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있었을 따름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다른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친지들이 예수를 데려갔고, 후에 예수는 가장을 하고 나타나거나 혹은 숨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것이 알리로 하여금, 예수가 카시미르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랑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여 죽었다고 하는 아흐마드파의 신념을 갖게 하였다.[28]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그들은 그를 살해치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꾸란의 기록은 문자적으로 옳다.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는 죽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십자가에 못박지도 아니했고"("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였고")는 "그들이 실제로 그를 십자가에 못박기는 하였으나, 그의 죽음을 초래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십자가형에 처함")이 성공했다는 것은 못질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에 의해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경우에는 그렇지않아서,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그의 몸은 무덤에서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생기를 회복하였고 그 후 제자들과 함께 동쪽으로 가서 오래도록 살면서 가르침을 전하였다는 것이다.[29] "셔비하 라

28 Parrinder, *Jesus in the Quran*, 113.

29 Cragg, *Jesus and the Muslim*, 172.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꾸란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가장 자연스런 해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기도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난처한 문제는 바로 다음 구절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4:158)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이다. 즉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셨다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은 예수가 비록 살아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한 그의 삶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양시키셨다)는 은유적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Ⅳ. 십자가 사건 해석의 배경

1. 기독교 단성론의 영향?

전 단락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대체된 수난설"의 입장을 따르든지, "기절설"을 따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 무슬림들의 일치된 신념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슬림의 기독론은 아흐마드파의 학자인 무하마드 자프룰라 칸(Muhammad Zafrulla Khan)의 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은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저주받은 죽음도, 인류의 죄를 짊어짐도, 부활도, 승천도, 속죄도 없다. 따라서, 교회신학의 전체 구조도 무너져 버렸다."[30]

30 Muhammad Zafrulla Khan, *Deliverence from the Cross* (London: The London Mosque,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그렇다면 왜 무함마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을 부인하였는가? 때때로 이 구절, 혹은 이 구절에 대한 이슬람의 해석은 도케티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문제가 되는 동사 "셔비하"가 그리스어 "도케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 동사는 초대 교회에서, 수난을 당한 것으로 믿어졌던 예수의 몸은 실제가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도케틱스)에 어원을 제공하였다.[31] 그러나 2세기에 활발한 영향력을 미쳤던 도케티즘의 가르침과 영지주의적 복음서들이 7세기 아라비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5세기에는 황제 져스티니안이 속해 있었던 "아프타르토 도케티주의자들"(aphtharto-docetists)이 있었는데, 져스티니안(Justinian)은 그리스도의 몸은 영화되어서 육체적 약함에는 무감각하며, 부패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도 예수의 수난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꾸란의 의미와 도케티즘의 영향을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위험한 일이다. 수 백년의 시대적인 차이와, 도케티즘이 무하마드의 상황에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독교 도케티즘은 성육신의 교리에 대한 믿음과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 인간됨으로부터 "신성"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강한 경향을 띠는 반면에, 이슬람의 기독론의 출발점은 선지자이며 종인 인간 예수이기 때문이다.[32]

1978), 89.

31 Cragg, *Jesus and the Muslim*, 173.

32 그런데 타드 라슨(Todd Lawson)은 그의 주목할 만한 저서인 The Crucifixion and the Quran : A Study in the History of Muslim Thought 에서 두 가지 유형의 도케티즘을 소개한다: 첫째는 전통적인 무슬림들의 해석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듯이 보였으나 실은 다른 이가 수난 당했다고 해석하는 "문자적 도케티즘"(literal Docetism)과 예수의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2. 신론의 관점

무슬림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 배경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도중의 한사람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죽는 것을 허락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시켜서 알 노와이히(al-Nowaihi)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이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해되도록 허락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며, 배반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33] 무슬림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충실한 종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 적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수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씌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34]

또한 전 단락에서 예수의 명칭에 대해 살펴 본대로, 예수를 하

몸이 실제로 수난당했으나 그의 내면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본성은 죽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비유적 도케티즘"(figurative Docetism)이 그것이다. 이것은 수피역사에서 예수와 가장 유사하게 묘사되는 만수르 알-할라즈의 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그도 수피 신앙으로 인해 십자가에 화형되었고 그 자리에서 알라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탄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한 예수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꾸란 4:157을 암송한 것으로 알려져 예수의 죽음이 그의 본성과 내면을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처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무슬림 학자들은 4장 157절을 긍정적인 도케티즘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는데 즉, 그 구절은 십자가형이 예수의 몸은 죽일 수 있었어도 그의 영적이고 영원한 본질을 파괴할 수는 없었으므로 궁극적으로 예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Todd Lawson, *The Crucifixion and the Quran : A Study in the History of Muslim Thought* (Oxford: One World Publications, 2009), 4.

33 Muhamed al-Nowaihi, "The Religion of Islam,"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65,258, April, 1976), 216.

34 Kenneth Cragg, *The Call of the Minaret*, 268.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보는 이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구해져야만 했다. 크래그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 즉 그의 선지자됨의 신뢰성(credibil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위해서 예수는 모욕과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원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고, 그의 지위는 완전히 부인된 것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고 이슬람 신학은 이해한다. 물론 꾸란에는 예수 이전에 순교를 당한 사도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예수의 경우는 무함마드의 경우에서처럼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그들의 적대자들보다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십자가에서 구원되었다는 것이다.[35]

3. 속죄론과 구원론

예수의 십자가 수난을 부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이 속죄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전통주의 기독교에서는 인간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으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 지은 자 자신이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유일신 하나님께 귀의함으로써만 구원될 수 있다. 중보자와 타인에 의한 대속은 가능하지 않다. 이슬람은 신앙 문제에 관한 한 신과 인간과의 직선적 관계를 신조로 삼으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제직을 두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

35 K.Cragg, *Jesus and the Muslim*, 173.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을 져야 한다. 그리고 청원된 용서와 구원에 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이다.[36]

이슬람의 핵심은 개인적 신앙이며,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의 합리성, 기독교에서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는 오직 순종적인 행위를 통한 "의로움" 뿐인 것이다.[37] 개인의 악한 행위는 양도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오직 행악자에게만 속한 것이다. 타인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부도덕한 일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에는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크래그에 의하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무슬림들의 뿌리 깊은 부정은, 비록 예수가 십자가상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 기인한다. 그와 같은 믿음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4. 인간론

마지막으로 인간론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해의 차이로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수난의 불필요성을 견지한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전이 인간의 상황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토라에 의하면 인간의 특성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아담("인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나(창 1:26-27)

36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꾸란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17.

37 Richard J.Jones, "Wilfred Cantwell Smith and Kenneth Cragg on Islam as a way of salvation," *IBMR* (July, 1992), 107.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났다(창 3). 꾸란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인간은 본성(fitra)이 순수한 일신론자(hanif)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수라30:30)[38]라고 기록하고 있다. 토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꾸란에서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동산에서 쫓겨났으나(수라20:121)[39] 성경의 묘사와 달리 꾸란에서의 아담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20:115).[40]

토라의 기록을 이어 받아 복음서는 계속해서 아담의 유형을 따라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롬 5:12).[41]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상황이기도 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한다"(롬 7:19)고 고백하였다. 반면에 무슬림 학자인 바드루 카테레가(Badru Katerega)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존엄한 존재로서 타락하

38 "그러므로 그대의 얼굴을 확고히 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향하라.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이 종교를 두셨노라. 하나님의 창조성은 변경되지 아니하매 그것이 진리의 종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수라30:30). 본문의 뜻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세이드 호세인 나스르가 편집한 Study Quran의 영역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et thy face to religion as a *hanif*, in the primordial nature from God upon which He originated mankind – there is no altering the creation of God; that is the upright religion, but most of mankind know not – , Seyyed Hossein Nasr et al eds.,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5), 991.

39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으매 그들의 벌거벗음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그들은 천국의 나무 잎으로 그곳을 가리기 시작했고 아담은 그의 주님의 명령을 배반했으니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수라20:121); "So they both ate therefrom. The their nakedness was exposed to them, and they began to sew together the leaves of the Garden. Adam disobeyed his Lord, and so he erred"(Surah20:121).

40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성약을 했으나 그는 그것을 잊었더라 그러나 그에게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노라."(수라20:115); "And We indeed made a pact with Adam aforetime, but he forgot. And We found no resoluteness in him"(Surah20:115).

41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지 않았다"라고 묘사하였다.[42]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를 토대로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들의 견해는 아담의 본래적 본성이 순수했다는 것에는 유사성이 있으나 현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꾸란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본래적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존재로 인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꾸란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서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무슬림들의 주장보다는 기독교의 "타락"에 대한 서술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창조되었으면 그들은 타락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아담의 창조에 대한 단락에서 꾸란은 "주님께서 천사에게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려 하십니까..."("And when thy Lord said to the angels, 'I am placing a vicegerent upon the earth,' they said 'Wilt Thou place therein one who will work corruption therein and shed blood...")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알라의 대리자로서 피조세계에 대한 아담의 통치는 타락에 이를 것이라는 천사들의 우려를 담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러한 타락과 다른 인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은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아담에게 경배하라는 알라의 명령에 거부하고 "...나는 그의 후손들을 소수만 제외하고는 멸망케 하리요"라고

42 Badru D. Kateregga and David Shenk, *Islam and Christianity* (Nairobi: Uzima Press Ltd., 1980), 109.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선언하므로서 지속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절이 꾸란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7장에서는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당신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을 발견치 못하리요."(수라7:16-17)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장에서도 사탄은 "...주여 당신이 나를 방황토록 하였기에 지상에서 내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 모두를 방황케 하리요."(수라15:39)라고 선언한다. 꾸란에 기록된 그 이후의 기록이나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이러한 사탄의 선언이 공허한 교만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세 번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꾸란의 일부 구절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불순종하거나 거슬렀다는 암시를 주고 있어서 그가 단순히 잊어버림으로써 실수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과실을 따 먹는 묘사는 매우 강력한 어휘로 표현되고 있다: "...아담은 주님의 명령을 배반했으니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Adam disobey his Lord, and so he erred.")(수라20:115). 즉 아담이 알라와의 약속을 잊어서 명령을 어겼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본문에서는 의도적인 행위인 불순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불순종이후에도 아담과 이브는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기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Lord! We have wronged ourselves. If Thou dost not forgive us and have Mercy upon us, we shall surely be among the losers.") (수라7:23)라고 탄원함으로써 그들이 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아담에 대한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묘사는 "타락한" 이후의 아담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유사하다: 아담은 수치심을 느꼈고(수라7:22; 20:121),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으며, 낙원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할 것은 이러한 의도적 불순종과 그에 따른 낙원에서의 추방이 아담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슬람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그들이 알라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해결되었고 그것이 이후의 인류에게 유전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꾸란에는 이와 다른 구절들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7장에서는 이어서 사탄의 계속적인 유혹에 대한 경고가 "아담의 자손들"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다: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의 선조를 유혹하여 그들의 의상을 빼앗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나게하여 너희 부모를 천국으로부터 속박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와 그리고 그의 무리는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보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만 사탄을 적으로 두었노라"(수라7:27). 그 후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였고(수라5:27-30), 모든 공동체에게 사도들이 보내어졌으나(수라16:36) 그들은 차례로 인류에게 거절당했는데(수라15:10-11)[43]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백성과 라쓰와 사무드와 아드와 파라오과 롯의 형제들과 숲속의 동료(미디안)들과 투바의 백성들이었다"(수라50:12-14). 꾸란의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 이러한 명단은 계속 추가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의 백성들과 많은 도성들로서(수라22:42-45), 이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악을 행할 때마다

43 "그대 이전 초기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면 그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였어라"(수라15:10-11).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했다(수라10:13; 17:17; 19:98).[44]

인간에 대한 악한 묘사는 계속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수라12:103; 13:1);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수라12:106). 인간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잊어버리는 불완전하기는 하나 선한 존재라면 꾸란에 무수히 기록된 이들의 악행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슬려서 대다수가 불신자로 멸망당하고 길을 잃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된 이 현실들을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비록 꾸란 30:30에서 인간의 창조된 대로의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시에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는 인간의 궁경(predicament)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기록되어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꾸란12:53으로 여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과 관련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 자신을 변명치 않으리라. 실로 인간은 죄악에 물들기 쉬우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셉은 사탄이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탓하지 않고 인간 본성의 중심에 있는 죄악에 물들기 쉬운 성향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인간의 죄악 됨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14:34; 33:72; 14:34; 4:28; 11:9; 16:4; 96:6 등), 그래서 꾸란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벌을 주시려 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도 남기지 아니하셨으리라..."고 결론짓

44 "하나님은 너희 이전의 세대를 멸망케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매한 짓을 했을 때라. 그들의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믿니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지은 그들에게 보상하니라"(10:14).; "노아이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시켰더뇨. 주님은 그분 종복의 과오에 대해 아심과 지켜보심으로 충만하시느라."(17:17); "그들이전 하나님인 많은 세대를 멸망시켰노라..."(19:98).

www.kci.go.kr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꾸란의 결론이라면, 그 해결책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아마도 신적인 개입이 있어서야 가능할 것이고 그 개입은 꾸란에 수없이 반복된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서 비롯되는 궁극적인 개입이어야 하는 것이다.

Ⅴ. 결론

이제까지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이슬람간의 대화의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고 열띠게 토론되면서 동시에 가장 비생산적인 주제로 꼽히는 기독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꾸란과 이슬람 전통에서 사용되는 예수의 명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비록 그 명칭들이 신앙고백을 담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친숙한 명칭이기는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그러한 구원론적 의미는 배제한 채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호칭을 근거로 이슬람 내에서 예수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더욱이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기독론 논쟁의 핵심인 십자가 수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사람들의 간악한 모략에 의해 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 없고, 개개인이 저지른 죄는 각자가 다양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해결해야지 중보자가 대신하는 것은 악하고 효과도 없음으로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보다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경우에서처럼 인간은 죄인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유로 각 세대,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꾸란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보다 훨씬 많은 구절들에서 인간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에 의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많은 세대와 공동체들이 불신자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했음을 암시하고 있어서 결국 꾸란의 인간이해가 기독교의 인간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꾸란의 기독론에 대한 이해라는 본 연구를 진행하며 필자는 삼십여년 전 "더 이상 이슬람의 기독론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지 말라"는 스승의 조언이 기억났다. 아마도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주제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안타까운 스승의 마음의 표현이었겠으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기독교-이슬람간의 관계와 대화의 중심에는, 혹은 마지막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론이 있어야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꾸란과 성경이 증명하는대로 인간의 죄악 된 궁경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긍휼과 자비, 혹은 사랑이 동기가 된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그 본래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그 길이 어렵고 더디고 비생산적이라 해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확증하는 신실한 삶을 통하여[45] 무슬림들에게 전달되어야하

45 Ida Glaser, "Cross, Qiblah and Glory: What Should Direct Christian Responses to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며 이렇듯 자신을 부인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고난당하는 사랑만이 죄와 그의 열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46]

Islam?," in *Muslim-Christian Encounter* (Seoul: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vol 10, no.1, 2017), 10.

46 Nancy Roberts, "A Muslim Reflects on Christ Crucified: Stumbling-Block or Blessing?," in *Islam-Christian-Muslim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3), 328.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참고문헌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 보는 그리스도-꾸란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미간행 논문. 한국 이슬람 연구소 특강 강의안. 1992.

Ata Ur-Rahim, Muhammad. *Jesus, A Prophet of Islam* Karachi Begum Aisha Bawany Waqf. 1980.

Balic, Smail. "The Image of Jesus in Contemporary Islamic Theology." in *We* Schimmel and Abdoldjavad Falaturi. eds. New York: Seabury Press. 1979.

Cragg, Kenneth. *The Call of the Minaret*, second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Ibadan: Daystar Press. 1985.

_____. *Jesus and the Muslim* Lodon : George Allen &Unwin. 1985.

Cumming, Joseph L. "Did Jesus Die on the Cross?: Reflections in Muslim Commentaries." in J. Dudley Woodberry, Osman Zumrut and Mustafa Koylu eds., *Muslims and Christian: Reflections on Peace: Divine and Human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Glaser, Ida. "Cross, Qiblah and Glory: What Should Direct Christian Responses to Islam?." in *Muslim-Christian Encounter* 서울: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vol.10. no.1. (2017): 10-53.

Jones, Richard J. "Wilfred Cantwell Smith and Kenneth Cragg on Islam as a Way of Salvation." *IBMR* (July, 1992).

Kateregga, Badru D. and David Shenk, *Islam and Christianity*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Nairobi: Uzima Press Ltd. 1980.

Kerr, David. "Christology in Christian-Muslim Dialogue." in Robert F. Berkely and Sarah A. Edwards eds., *Christology in Dialogue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1993.

Kuites, Roelf S, "Christology in the Quran." *Missi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1.XX, No.3 (July 1992).

Lawson, Todd *The Crucifixion and the Quran : A Study in the History of Muslim Thought* Oxford: One World Publications. 2009.

Moucarry, Chawkat. *The Prophet and the Messia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al-Nowaihi, Muhamed. "The Religion of Islam."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65,258, April), 1976.

Nasr, Seyyed Hossein et al eds.,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5.

Parrinder, Geoffrey *Jesus in the Quran* Oxford: One World. 1996.

Robinson, Neal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London : McMillan Press. 1991.

Roberts, Nancy. "A Muslim Reflects on Christ Crucified: Stumbling-Block or Blessing?." in *Islam-Christian-Muslim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13.

Zafrulla Khan, Muhammad, *Deliverance from the Cross* London: The London Mosque. 1978.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ABSTRACT

Understanding Quranic Jesus Based on Its Narrative on Crucifixion

Ah Young Kim

Did Jesus die on the cross and then rise from the dead? This question has generated vigorous discussion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for more than fourteen centuries. The long history of Christian–Muslim encounter has seen Christology as a primary issue of controversy, often the subject of acrimonious debate, rarely productive of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Aware of this, some scholars from both religions argue that Christology should be put aside because Islamic meanings of Christ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Christian theological confession: There can be nothing theologically agreed upon on this matter, they argue, because Islam rules out any incursion of the human into the sphere of the divine. While the Quran elevates Jesus above other mortals, he remains no more than "a subject of the history of prophets" by which God guided humankind until revelation was sealed by the final prophet, Muhammad.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

Christians and Muslims have differed sharply especially over the question of whether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Christians affirm that he did and Muslims insist on the basis of the prevailing interpretations of Quran 4:157–158, that he did not. The Quran indisputably denies the core of Christian doctrine, that is, death at crucifixion. In other terms, God's prophet could not be killed by human beings. The Quran clearly speaks on the people's intention to kill Jesus, only to fail because of God's intervention.

However, discussions and analyses show what a rich and diverse range of answers to this question have historically been seen as legitimately supported within the Muslim community. I believe that there can be room to find common ground regarding the reason why crucifixion had to historically occur, especial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n the human condition.

The crucifixion represents an urgent and ongoing call – addressed to Christians and Muslims alike – to faith in the divine power which redeems, transforms and delivers through suffering love; and only through this faith, we can overcome evil with good.

KeyWords: Christian–Muslim Dialogue, Christology, Crucifixion, Substitution Theory, Islamic Understanding on Human Condition

논문투고일: 2018.09.12 논문심사일: 2018.09.28 게재확정일: 2018.09.29

www.kci.go.kr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IP:220.67.255.*** | Accessed 2021/02/08 11:52(KST)